◇무루회 배문수안 회장이 20일 생명나눔실천회에 후원금을 전달하기에 앞서 천천클럽 보시금의 용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랑주고 기쁨받는 천원의 힘

1000명이 한달 1000원 후원, 복지시설서 봉사도

매달 스님초청 가정법회, 길·흉사 가족처럼 챙겨

바라밀현장

무루회의 '천천보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보살은 지난 달 회갑을 맞아 자식들의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회갑잔치를 간소화하고 자식들이 준 잔치 비용을 모아 불우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믿을 만한 불교모임에 보시했다. 이 단체가 바로 사찰이나 포교당이 아닌 가정에서 이웃 친지끼리, 지역 사찰의 법우들끼리 모여 법회도 열고 보시행도 실천하는 가정법회 모임 무루회(無漏會)다.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서구 화곡1동 배득연 보살의 2층 양옥집. 3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주부 불자들이 반갑게 합장하며 찾아 들었다. 매월 셋째 목요일 어김없이 열리는 '무루회(회장 배문수안)' 정기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오늘은 대원사 성허 스님의 법문과 생명나눔실천회에 지원금을 전달 행사가 있는 날. 간경화로 사경을 헤매는 조계사 이연옥(38) 불자의 간 이식수술비에 보태고자 무루회가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이날 초청법사인 성허 스님은 "무루회 회원들의 신심과 바라밀행에 감동해 법석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즉석에서 지원금을 내놓고 법문을 시작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밝히고 한 그루 나무가 숲을 만듭니다. 한번의 손길이 이웃에게 웃음을 주고 한 사람의 마음이 사회를 밝힙니다. 이는 수행과 기도의 공덕을 사회로 회향할 때 가능합니다."

1000명이 한달에 1000원을 후원하는 일명 '천천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무루회 회원들은 참선과 기도로 용맹정진해 온 성허 스님으로부터 보살행의 중요성을 듣고 더욱 환희심을 낸다. 천원의 작은 정성들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무루회 회원들은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장학금을, 독거노인에게는 후원금을, 군법당에는 염주 8천개와 먹거리를 전달하는 등 자비행을 조용히 펼치고 있다.

"육바라밀 실천하며 세세생생 도반되어 성불할 때까지 용맹정진하자"는 무루회 발원문을 따라 배득연 · 신연희 · 김혜숙 보살 등 7명의 회원이 처음 모인 것이 벌써 14년 전. 현재 법회 참석인원만 2백여명, 천천클럽 후원회원은 800여명에 달한다.

총무 김진송(51 · 선우향) 보살은 "회원 각자가 강서 · 양천구 지역의 사찰에 다니면서 신행을 하는 한편 매달 한번 친목을 다지며 성지순례, 철야기도, 보시행을 실천하기 위해 모였다"고 모임의 취지를 설명한다. 무루회는 매달 가정법회를 열어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한편 수시로 어려운 이웃에 후원금과 장학금을 전달한다. 소쩍새마을, 강화도 군법당 무애원, 선재동자원, 연꽃마을 등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해 왔다. 또 도반들의 가정에 길 · 흉사가 생기면 함께 참석해 경전도 독송하면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무루회는 천천클럽 후원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준다. 요즘은 천천클럽의 맑고 투명한 신행이 지역 사회에 소리 소문없이 알려지면서 자발적인 후원회원도 늘고 있다. 집안에 경사가 있는 회원들은 행사비용을 아껴 성금으로 기탁할 정도다.

신연희 보살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커지도록 항상 발원한다"면서 남과 나누는 그 자체가 그저 행복할 뿐이라고 말한다. (02)2605-5619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원력불자 **배 문수안** 회장

"작은 일도 함께 나눔이 중요"

"1000원이라는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낸다는 의미가 더 크죠."

서울 강서구 구민들에게 무루회 배문수안(55 · 서울 화곡동) 회장은 불교 포교사일뿐 아니라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서는 불자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국회의원은 물론 구청장에게도 수시로 찾아가 당당하게 어려운 시민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할 정도니 말이다.

이런 원력은 배 회장의 깊은 수행력에서 나온다는 것이 회원들의 말이다. 매일 한 차례도 거르지 않는 기도와 절하기, 참회로 이미 부끄러움을 의식하지 않는 인욕공부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란 것.

배 회장은 "작은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 다양한 불우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달할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며 "욕심내지 않고 성실하게 작은 실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다짐한다.

心 마음비추기

백겁의 업도 한 생각에 사라져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살아왔던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 할머니는 세상을 참으로 지독하게 산 분이었다. 마음은 무척 착하고 자상하신 분이었지만 평생 돈을 모으는데만 열중하시다 가셨다.

남편인 할아버지도 구두쇠였지만 할머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잘 사는 자식들도 두었고 재산도 많았지만 제대로 된 옷 하나 걸치고 지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농토를 근동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음에도 토지 임대료를 내며 땅을 빌려 집을 짓고 사는 가난한 이웃의 울타리에 매달린 호박을 따갔다.

무엇을 모으는 데에만 열중하는 것이 그분의 하루였다. 하다못해 길가에 떨어진 병뚜껑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아 집에 가보면 병뚜껑이 담 모퉁이에 가득 쌓여있었다.

먹는 것을 얼마나 아까워 했는지 성공한 아들 덕분에 들어오는 선물 하나도 입에 들어가는 것이 싫어 벽장에 몰래 쌓아두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벽장을 청소하다가 김 뭉치를 발견했는데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곰팡이가 생겨 먹을 수 없어 버렸다고 한다.

이를 안 할머니는 며느리를 호되게 꾸짖었고 그 잔소리를 며느리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들어야만 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그 유언은 여태껏 그 할머니에 대해 품어왔던 부정적인 나의 마음을 한꺼번에 청소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었다. 전해들은 그 유언은 이러했다.

"얘들아, 나는 세상을 잘못 살았다. 나는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다. 어렸을 때 하도 못살았던 것이 한이 되어 평생 재산만 모았는데 그 한이 풀리지 않는다. 너무 허무하구나. 복도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지어야 하는데 남들한테 밥 한 끼 마음껏 먹이지 못한 것이 이젠 걸릴 뿐이다.

너희들 돈 모을려고 하지 말라. 내가 쓰지 못한 것 너희들이 누리고 살면서 남들에게 덕을 쌓아라. 그래야 내가 저승을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러면서 할머니는 어린 손녀를 향해 특별히 "얘, 너 한 삼년 전에 나한테 땅콩사탕 하나만 집지 서 너 개 집었다고 혼난적 있지? 그 사탕 지금도 벽장에 숨겨 놨으니 네 친구들에게 좀 나눠줘라." 하셔서 손녀가 "요새 그런 사탕 누가 먹어요" 했다고 한다.

부처님은 백겁동안 쌓인 업도 한 생각에 없어진다고 하셨다.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할 때의 마음이 바로 극락 가는 마음이 아니었나 싶다.

적연(유마선원장)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지유 케넷 선사 (下)

선(禪)의 사회적 역할 강조

지유 케넷 선사는 '선 포교 협회(Zen Mission Society)'를 이끌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샤스타 사원을 설립한 뒤 3년후인 1973년, 연이어 영국 중북부 노섬버랜드에 트로셀홀 사원을 설립했다. 5년간 교육을 받은 지도교사들이 양성되자 스님은 선포교협회를 불교명상종으로 전환하게 된다.

지유 스님은 당시 100여명의 제자들에게 계를 전했는데, 서양인 스님으로는 적은 숫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일본 조동종에서 제자들을 정식으로 등록시켜 주지 않자, 스스로 종단을 창립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영국, 캐나다, 독일, 네델란드, 미국 등에서 많은 사원과 명상모임을 만든 지유 스님은 서구인들의 정서에 맞는 선불교를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불교 명상종(Buddhist Contemplative Order)'이란 용어에서 'Contemplation'이 가톨릭에서 '묵상'이라는 말로 쓰이는 예에서 보듯, 상당부분 그리스도교적 언어나 제도를 빌어썼다.

가장 파격적인 것은 영어 독경을 비롯해 비구, 비구니의 호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스님(monk)'이라고 부르는 점. 이는 도겐(道元) 선사가 남녀평등을 말한 것에 근거한 것이었다. 지유 스님은 수행도량의 명칭 역시 '사원(monastery)' 대신 수도원(abbey)'을, 심지어 예불도 '아침기도(matins)'나 '저녁기도(vespers)'와 같은 가톨릭식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문화권에 적응하기 위한 방편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한다.

오히려 조동종의 기본 수행법인 묵조선 즉, 묵묵히 좌선하여 본래 자성청정(自性淸淨)한 마음의 작용을 일으킨다는 선풍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샤스타 사원 안내책자에 적혀있는 지유 선사의 말이다. "좌선을 통해 우리는 각자 가진 본성을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으며, 좌선을 통해 수행자는 자신과 세계를 어떻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지를 배우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를 통해 여여한 사물의 본질을 깨닫는 심오한 대전환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유 선사는 서구불교의 특징인 선의 '사회적 역할'도 강조하고 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성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미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지유 선사는 서양인들이 익숙한 이야기들을 불교적으로 해석하여 들려주는 재치가 탁월했다고 한다. 불교가 서구인들에게 가 닿을려면 그들이 좋아하는 색칠을 할 필요가 있었다. 서양에서 거듭난 선불교는 선종이라는 진리의 흐름을 담고 있기에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요 새로운 문화와 형식, 방법, 관습을 형성했기에 완전히 옛것도 아니었다.

'일상의 삶'에서 화두 찾기 가르쳐

그래서 지유 선사의 묵조선은 간화선과 같은 고정된 화두를 챙기는 대신 '일상의 삶'이라는 화두를 가슴깊이 새기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1996년 입적할 때까지 남긴 저서 <선은 영원한 삶(Zen is Etemal Life)>,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How a Zen Buddhist Prepares for Death)> 등 10여권의 저서는 이러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김재경 기자

◇지유케넷 스님이 창종한 불교명상종 본산 美 캘리포니아 샤스타사원의 수행자들.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접수방법 : 특별속성반 3개월과정(제 13기)**
- **지도방법 :** ① 출 강 …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후 6시 ~ 8시 (2시간)
  ② 통 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학습내용**

① 송 주 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상단예불 · 조석예불 · 각단예불 · 향수해례 · 사성례 ·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 식 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현재 접수 중)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개강일시 : 2003년 4월 4일 (금) 오후 6시, 본 대학 강의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의 특징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지도와 편의 제공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Fax. (02)737-5305
http://pubsa.buddhism.org

바라작법반 모집

49재 천도재 등 법회시 필요한 바라 작법 및 북 · 태징 · 사물 다루는 법을 자세하게 지도함.

- **수련기간 : 6개월과정(제 5기)**
- **교육시간**
  매주 월요일 5시 ~ 7시(2시간)
  화요일 3시 ~ 5시(2시간)
- **개강일시**
  2003년 4월 7일 (월)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학습내용**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점안의식 등 (법주 · 바라지 교육전문)
  - **작 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복청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사 물 :** 북, 태징 등 사물 교육
- **※ 접수방법 :** 불교의식반과 동일

봉행

부처님 진신사리 및 장엄 친견법회

봉행

초청큰스님 – 불국사회주 성타 큰스님

태국 왕국사찰의 와벤저 스님께서 서경보 큰스님께 전수한 부처님 진신사리 중 2과를 서경보 큰스님께서 노적사에 전수한 바, 부처님 진신사리함이 국내 최고의 권위자인 최광웅 거사에 의해 제작 완료되어 '부처님진신사리 및 장엄(사리함) 친견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화재 때 요사채가 전소되어 모든 것이 다 타버렸는데도 부처님 진신사리함을 모신 은사리함만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부처님 진신사리함을 금 · 은 · 동으로 다시 제작, 이번에 '부처님진신사리 및 장엄(사리함) 친견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노적사 부처님 진신사리함

많은 불자님들께서 이번 친견법회에 동참하시어 시공을 초월하여 부처님을 친견하는 장엄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한다 함은 부처님을 지금 바로 앞에서 모신 것과 같은, 말로 할 수 없는 환희와 영혼의 감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리장엄'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는 부처님께서 현신하시어 소리없이 불법(정법)을 설하시어 중생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 봉행일시 : 불기 2547년 4월 2일(음 3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 친견기간 : 불기 2547년 4월 2일(음 3월 1일)~ 4월 8일(음 3월 7일)
◆ 친견장소 : 노적사 대웅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
Tel. 02)353-5016, 354-7900 / Fax. 02)386-4198
북한산 노적사 주지 종후 합장